



지난 13일 신안군 종도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아마바둑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바둑을 두고 있다. <전남도 제공>

바둑 묘미 '천사의 섬' 적시다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

한국바둑리그·전남지사배 아마최강전 잇따라 열려

프로기사들, 신안 바둑팬·초등생과 다면기도

이세돌기념관에 이어 프로바둑팀을 창단해 '바둑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안군에서 흥겨운 바둑 축제가 열렸다.

2009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는 각팀의 연고지를 돌며 경기를하는데, 최근 신안에서 '신안투어'를 가졌다.

또 제5회 전남도지사배 아마최강전도 함께 마련돼 지역민들이 프로기사들과 지도다면기를 하는 등 지역 바둑 동호인들이 모처럼 바둑 두는 재미에 흡뻑 빠졌다.

2009 KB국민은행 한국바둑리그는 '신안투어'에서는 박정상 9단이 올해 첫 창단한 신안천일염팀에 첫 승을 안겼다.

해안이 내다보이는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 특설대국현장에서 지난 14일 열린 바투와의 대결에서 박정상은 허영호 7단을 306수 만에 백으로 1집 반승을 거뒀다.

앞서 지난 13일 신안 바둑팬들의 공개투표에 의해 두 선수를 대국자로

선정했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국은 중반 이후까지 허영호의 우세가 지속됐다. 실수를 반복하거나 크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승리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박정상이 막판 중앙을 공략하며 역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전세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막판에는 반집계가를 다투는 상황까지 허영호가 쫓아가 됐다.

이날 대국은 총 5판 중 팬 투표로 선정된 박정상·허영호의 1국만 진행됐다. 나머지 4판은 20, 21일 이틀간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경기 후 신안태평천임염전팀의 이홍렬 감독은 "우리팀은 강동윤과 박정상의 기본 화력이 좋고, 이정우가 든든한 밤행노릇을 하고 있어 감독하기가 편하다"면서 "꼭 좋은 성과를 내 신안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신안 종도초등학교에서 열린 제5회 전남도지사배 아마최강전은 2연승이다.

전에는 신안팀과 바투팀의 프로기사가 출출동해 신안 바둑팬과 초등학생들과 다면기를 펼쳤다.

수려한 해안선을 배경으로 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진행된 이 대회는 여성부, 단체부, 중·고등부, 초등부, 최강단체전 나눠 1천여명이 참여했다.

대회의 꽃인 최강부 단체전은 4인 팀(시니어, 주니어, 여성 혼합)으로 구성돼 13팀이 참가했다.

이틀에 걸쳐 4회전 변형 스위스리그(승수와 팀합산 나이 기준)으로 열띤 대결을 펼쳐 팀 나이가 많은 '촉촉수'(주장 이용희)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양단수'(주장 유병용) 팀이 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한국리그는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14라운드로 펼쳐진다. 총 상금 24억원 규모의 KB국민은행 2009 한국바둑리그는 5월 21일부터 매주 목~일요일 저녁 7시와 9시에 더블리그로 진행된다.

7개 팀 중 3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총 상금 규모 11억원,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세계 바둑 영재들 한자리에!

27일 광주·목포 등서 세계어린이국수전

한·중·일·불 등 9개국 1만2천여명 참가

'제9회 대한생명 세계어린이국수전'이 오는 27일부터 광주와 목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다.

(사)대한바둑협회의 주관하는 이 대회는 단일 바둑 대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바둑 대회이다.

지난 2001년 창설된 이후 매회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바둑강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태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 9개 나라의 어린이 1만2천여명이 참가한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예선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27개 도시에서 펼쳐진다.

광주는 오는 27일 엄주체육관(문의 광주시 바둑협회 062-682-9003), 전남은 7월 11일 목포 대한생명 목포지점(문의 전남도 바둑협회 061-281-0880)과 같은 달 18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펼쳐진다.

본선에는 288명의 어린이가 올라가며, 오는 8월 5일 서울 63빌딩에서 결승전을 벌인다. 본선부터는 아마

참가부문	자격	본선 참가인원	비고
최강부	아마9단 이상	32명	국내 본선 선발권은 10월 1일 오후 3시에 신안군청에 따라
유단자부	아마8단 이상	64명	최강부 단체전은 4인 팀으로
고학년부	5~6학년	64명	생별부는 지역 예선전에 참가함
중학년부	3~4학년	64명	
저학년부	1~2학년	64명	
선수부	10급 이하	-	

5단급의 실력을 갖춘 외국 어린이들도 참가해 우승을 노리게 된다.

이 대회는 프로의 등용문이기도 해 1회 대회 우승자 권형진(프로 2단), 2회 대회 준우승자 김수용(프로 2단), 4회 대회 우승자 이호범(프로 1단) 등이 프로 입단에 성공했다. 또 이지현, 나현, 유흥환 등의 연예 입상자들 대부분이 연구생 상위에 있으며 바둑계의 유망 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최강부 우승자(어린이 국수)에게는 장학금 1천만원이 주어지고 준우승자는 500만원 등 각 부문에서 역대 최대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 참가신청은 19일까지,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ve.com)와 대한바둑협회 홈페이지(www.kbaduk.or.kr)를 접속하면 각 지역별 참가접수처를 확인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이세돌 중국리그 17연승

콩지에 꺾고 팀 승리 수훈

최철한도 리저 꺾고 3연승

국내 대회 휴식을 선언한 이세돌 9단이 중국리그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이세돌(사진 오른쪽)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리그 콩지에 9단과의 대결에서 불가능했다.

이로써 이세돌은 지난 2006년 이후 중국리그 17연승을 내달렸다. 그는 18개월 간의 기사직 휴식을 선언한 이후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한 팀이 우승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세돌은 지난 2004년부터 꾸이저

우팀에 와서 지난해까지 32판의 대국을 두어 약 300만원이상을 벌었다.

이날 이세돌 9단의 승리를 포함하여 박문요 5단이 속기대국에서 뛰어 아시 3단을 누르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꾸이저우는 승점 2점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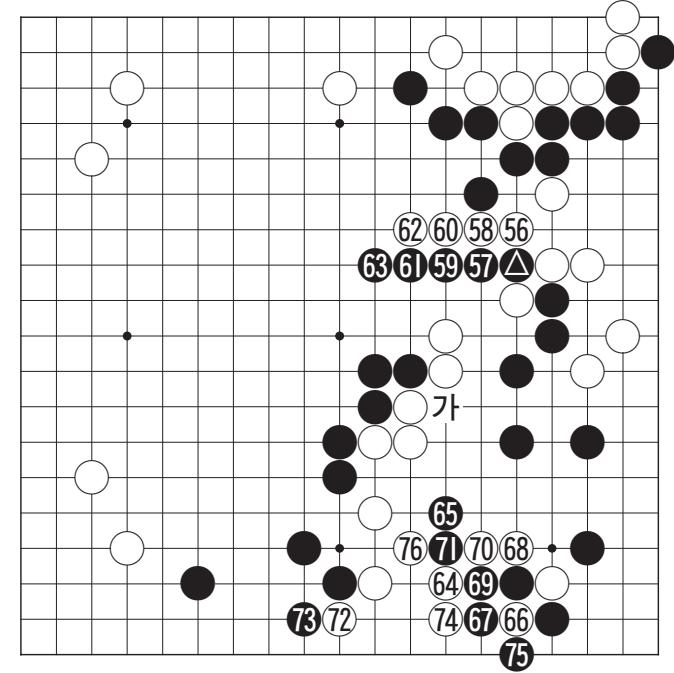
현재 승점 15점, 승률 16국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꾸이저우는 지난 16일 현재 광시팀에 승점 3점을 앞서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하이와 총점은 각각 4위, 10위에 올라있다. 한편 시안팀의 최철한 9단 역시 리저 6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해 3전 전승을 기록중이며, 팀 역시 무한팀에 4-0 우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확보했다. /오광록기자 kroh@



'위험천만한 대모험'
2회전 4보(56~76)

白 박광주 5단 黑 강행욱 5단
<주택관리사회> <광주시청>



전 보에서 강행욱 5단이 흑 66로 자리를 잡자 흑 65가 백의 숨통을 끊는 급소가 되었다. 백 66은 궁지책의 절단,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젖히고 3으로 허구하는 것이 모양 갖춤의 틀이나 후 4로 들여다 본 다음 6으로 파호하면 역시 살기 어렵다.

백 66으로 끊어가는 고육책을 썼으나 흑 71까지 백 대마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는 모습이다. 박광주 5단도 이제는 손길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살 수 있다는 확신은 사라졌다. 행운만 버리는 형국이다. 백 76으로 젖혀간 수가 마지막 희망이 담긴 안간힘이다.

흑으로서는 '가'로 끊어만 잡아도 우세했던 국면이 이제는 백의

위험천만한 수였다.

다음에서 보다시피 박광주 5단이 강력하게 백 66으로 물고 나오자 흑 63까지 일직선으로 밀리고 있다. 이제는 위쪽 흑 대마가 잡힌 것이 위나 커서 아래쪽 백 대마를 손해없이 통째 잡아만 탄산이 맞는다.

흑으로서는 '가'로 끊어만 잡아도 우세했던 국면이 이제는 백의

위험천만한 수였다.

다음에서 보다시피 박광주 5단이 강력하게 백 66으로 물고 나오자 흑 63까지 일직선으로 밀리고 있다. 이제는 위쪽 흑 대마가 잡힌 것이 위나 커서 아래쪽 백 대마를 손해없이 통째 잡아만 탄산이 맞는다.

흑으로서는 '가'로 끊어만 잡아도 우세했던 국면이 이제는 백의

"이세돌 돌아오라" 한국기원 공식 촉구

한국기원이 이세돌 9단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한국기원 한상열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세돌 9단 혼자서 선수단에 대해 이같은 입장장을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기원 규정 상 6개월 간 기전에 참가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따라서 기전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는 (이세돌이) 휴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을 전시하는 전문 경매사이트 / 경매 전문가 우편 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 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 있게 경매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 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터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박경철이사 010-2811-5568 주택/재개발 경매이사 010-5070-0005

A+ 에이플러스공인증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권설정 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8-757-8800

토지구함	수완지구	건축상담
상업용지	상업용지	상업용지

첨단지구 상업용지

주유소

650평 35평/월 600평 16평

200평 22평(평당 1100만)

수완택지 개발지구

광주역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불류공단부지 2900 2600 4900평

신창택지 개발지구

수원동 140평 근처 120평 800평

상업용지 140평 근처 80평

주유소 : 3800평-대형차량인입 6차선

생산지 : 2800평-평동공단인입 특기상단

우편집

장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금당 40평 건물 470만원

보증금 37억/월세 3,000만원 월지 12억

도지 500평 건물 1,500평(매기 85억)

보증금 7억/월세 6,000만원 예가 85억

토지 590평 건물 750평(매기 100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자 12억

별장(임대용, 투자용)

- 토지 400평 건물 350평(매기 78억)
- 보증금 37억/월세 3,000만원 월지 12억
- 도지 500평 건물 1,500평(매기 85억)
- 보증금 7억/월세 6,000만원 예가 85억
- 토지 590평 건물 750평(매기 100억)
-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자 12억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전남권 및 시외촌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